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주류 담론과 라클라우 담론: 근대성의 시각과 '대중' 주체의 시각*

안 태 환
성공회대학교

안태환(2019),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주류 담론과 라클라우 담론: 근대성의 시각과 '대중' 주체의 시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39-73.

초 록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해석하는 주류 담론과 라클라우 담론에 대한 분석이다. 포퓰리즘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여 한 마디로 규정되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과두 엘리트/다수 대중의 대치전선이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어이기 때문이다. 주류 담론은 1940-1950년대의 포퓰리즘을 해석하는 헤르마니와 1980-1990년대의 네오포퓰리즘을 다룬 웨이랜드를 가리킨다. 라클라우 담론은 1990년대 이후 출현하였다. 헤르마니는 포퓰리즘을 지도자에 의한 대중의 조작, 선동, 동원으로 해석한다. 또한 국가발전 '과도기'의 계급동맹으로 해석한다. 웨이랜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후자는 사라지지만 전자는 그대로라고 주장한다. 즉, 주류 담론은 엘리트가 대중을 객체로 바라보는 위계적 근대성의 시각을 보여준다. 국가발전을 중시하는 것도 근대성의 시각이다. 한편, 라클라우는 주류 포퓰리즘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포퓰리즘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급진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정치의 논리'라고 해석한다. 그 출발점은 대중이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출현하는데 있다. 즉, 대중의 요구를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의 '등가적 연쇄'를 중시한다.

핵심어 주류 담론, 라클라우, 위계적 근대성, 대중의 요구, 등가적 연쇄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4442).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은 매우 중요한 정치형태이다. 라클라우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과두 엘리트/대중의 대치전선이기 때문이다(데 라 토레 1992, 386 재인용).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정치형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정치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퓰리즘 자체는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다만 어느 사회의 진보세력이 포퓰리즘을 구성할 수도 반대로 극우세력이 이를 구성할 수도 있다.¹⁾ 중요한 것은 어느 체제를 포퓰리즘이란 말로 단순하게 환원시킬 수는 없다. 포퓰리즘적이라면 동시에 다른 정치적 성격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Laclau 2009, 825).

주류 포퓰리즘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웨일랜드도 “포퓰리즘은 많은 학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불가결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Weyland 2001, 1).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주로 ‘대중 영합주의’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정책으로 표현되는 재분배 정책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권에 대한 공격을 함축하고 있다.”(진태원 2013, 183). 가난한 대중의 이익을 위한 좌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그 정책 자체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지도자에 의한 대중의 선동, 동원이라는 논리로 공격하는 우파의 논리다. 이런 공격은 교묘하면서도 거의 증오의 언술에 가깝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과학적 개념이라기보다 거의 직관적 이데올로기적 언술에 가까워보인다. 예를 들어, 웨일랜드는 포퓰리즘이 너무나 복잡하고 애매한 담론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한다. “학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각자 자기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 시각의 담론을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 그 결과 학문적 발전의 핵심인 논쟁과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다.”(Weyland 2001, 1). 이렇게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편

1)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세력의 포퓰리즘 사례로 차베스 체제를 들 수 있고 극우세력이 포퓰리즘을 구성한 사례는 최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을 들 수 있다.

화되어있는 이유는 근대성의 시각에서만 포퓰리즘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대성은 일직선적 발전, 위계서열적 이성, 또는 진보(미놀로 2013, 152)를 상정하는데 포퓰리즘이 이를 저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일상적인 ‘정치의 논리’다(2005, 150).²⁾ 즉,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특히 현대정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과 도구가 된다(Patruyo 2006, 169). 모든 나라의 정치에 포퓰리즘이 작동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각 나라마다 정치 지형이 다르므로 각각의 포퓰리즘의 역사적 맥락도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이야말로 랑시에르가 언급하는 ‘정치적인 것’(lo político)의 비유이다.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은 평등에 대한 검증이 식별과 분류의 기존 체제에 맞서는 영역이라”(랑시에르 2008a, 126)고 한다.³⁾ 왜냐하면 기존의 근대적 민주주의의 체제가 사회의 최대 약자인 ‘데모스’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데모스는 ‘대중’을 의미하는데 모든 시민이라는 전체로서 ‘대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약자인 부분의 ‘대중’을 출현시켜 전체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급진화 하는 것이라고 랑시에르는 주장한다. 랑시에르의 급진민주주의는 위기상황에서 기존체제를 전복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것으로 라클라우 포퓰리즘과 상응한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체제의 단절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다.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 담론이 시작될 때부터 엘리트에

2) 진태원은 “촛불시위를 비롯한 2000년대 한국정치-또는 어쩌면 그 이전 시기를 포함한 한국 현대 정치 일반-는 포퓰리즘 정치로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3, 185)고 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문 작성을 시도할 것이다.

3) 그 식별과 분류의 기존 체제는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감성적인 것의 구별 짓기이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원주민들은 유럽 시민이 선호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 기존의 분류에 맞선다. 페론주의의 경우, 시골에서 집단으로 도시로 이주해온 하층 노동계급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면서 ‘정치적인 것’이 출현하게 된다.

4) ‘정치’는 일반적인 당들 간의 권력투쟁과 이 권력의 행사라면 ‘정치적인 것’은 공통의 삶의 심금을 대상으로 삼는데 정치적인 것의 본질중 하나는 공통되게 있음이라는 생각을 단절할 것을 전제한다(랑시에르 2008b, 15-17). 즉, 정치적인 것은 ‘배제’에 저항한다.

의한 대중의 계몽이 있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알렉산드르 헤르첸의 영향하에 1870년대 러시아 농민들을 계몽하려했던 러시아의 젊은 혁명가들 및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대지주 및 금융재벌에 맞서 소작인이나 자작농의 이익을 옹호하려했던 미국 민주당의 운동에서 유래한다(진태원 2013, 186, 강조는 필자).

유럽에서 처음부터 포퓰리즘은 체제 변혁을 위한 ‘진보적’ 운동이었다. 하지만 대중 스스로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진보적 엘리트가 이끈 운동이었다. 즉, 초기의 포퓰리즘은 근대성(“이성, 진보, 정치적 민주주의, 과학, 상품생산, 새로운 시공간 개념, 급속한 변화”(미놀로 2013, 152)의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다. 근대성은 곧 진보의 동의어이다. “근대성이 가지는 진보의 신앙은 자꾸자꾸 사실 그대로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장소를 느끼고 순환을 느끼고 지속을 느끼고 문화를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추상의 세계, 동질적 공간, 직선적 시간, 과학, 돈으로 이루어지는 비-세계를 들이미는 초월의 필사적 모색이다.”(스베르트 2010, 416).

왜냐하면 진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이성적인 엘리트들이 ‘야만적’인 대중을 ‘계몽’하여(깨워) 이끌어간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은폐된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니발 끼하노는 1992년의 논문 “식민성과 근대성-합리성”에서 2차 대전 후 정치적 식민주의는 제거되었지만 16세기 스페인에 의한 라틴아메리카 정복 당시에 만들어진 유럽인들의 비유럽문화(당시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이성을 중심으로 정당화시킨 인종사이의 위계서열의 인식론(이를 식민성이라고 함)이 자본주의와 근대 세계체제의 핵심 동력임을 비판한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현재까지도 이 식민성을 은폐하고 유럽문화의 보편성의 이면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 아니발 끼하노에 의하면 스페인에 의한 라틴아메리카 정복은 라틴아메리카에 원래 있던 “사회와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대량학살과 함께 한 문화적 억압은 이전의 라틴아메리카의 고급문화를 구어성만 남은 무식한 농민의 하위문화로 바꾸어 놓았고 문화의 유럽화가 선포의 대상이 되어 유럽문화가 보편적 문화모델이 되

계”(1992, 439)하였다.

즉, 문화의 유럽화를 선도하는 엘리트와 대중의 문화 사이에 위계서열이 구축되고 엘리트가 대중을 이끌어 모든 것을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근대적/식민적 권력의 행사방식이 된 것이다. 이처럼 근대성을 중시하는 주류적 시각은 무식한 대중의 하위문화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담론에 대해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발전을 중시하는 근대적 시각에는 진보, 보수의 차이가 없다.⁵⁾ 여기에 날카로운 인식론적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즉, 포퓰리즘 담론에 두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가설이지만 헤르마니를 비롯한 주류 포퓰리즘 담론은 근대적 발전을 위해 포퓰리즘이 작동하였다고 인식한다면 라클라우의 새로운 포퓰리즘 담론은 그런 전제를 거부하고 대중 자신이 주체적으로 출현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적 논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근대성이 “인종주의적 위계성”(미놀로 2013; 끼하노 1992)을 함축한다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로 ‘보편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세계체제에서만이 아니라 일국의 내부에서도 늘 약자의 ‘배제’를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보편적’ 자유주의의 시각에서는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포퓰리즘을 병리적이고 타락한 ‘특수한’ 현상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마르차르(Marchar)에 의하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엘리트에게 대중은 “올바른 사회를 이루는 데 커다란 장애로 여겨져 왔고 감정적, 비이성적, 병리적 존재로 보였기”(Marchar 2006, 39) 때문이다.

하지만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정치의 논리”이고 민주주의를 급진화시키는 ‘보편적’ 정치형태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을 비정상, 이탈, 조작 등

5) 차베스 혁명을 진보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학자로 유명한 스티브 엘너도 198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포스트모던적 이론적 탐구와 연결되는 정체성의 사회운동으로 인식하는데(Ellner 2013, 9) 새로운 대중운동을 정체성의 정치로 바라보는 것과 라클라우의 ‘대중의 출현’으로 바라보는 것은 맥락상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자제한다.

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라클라우의 이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라클라우는 자유주의가 대중 주체의 건설을 중시하지 않으므로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포퓰리즘은 어느 정치 사회든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을 드러내어 이들의 절실한 '요구'를 듣는다는 점에서 추상적 진보를 믿는 자유주의적 '근대성'과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중요한 계기는 지식인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대중의 '구어문화'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

선행연구로, 진태원(2013)은 우리사회의 포퓰리즘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면서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을 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영표(2014)는 포퓰리즘과 민중 민주주의를 비교하며 새로운 대안정치를 모색하고 있으나 논리적 일관성이 약간 부족해 보인다. 김은중(2012)은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과 네오 포퓰리즘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왜 포퓰리즘이 가장 중요한 정치형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포퓰리즘의 주류 담론과 이와 다른 라클라우의 담론 사이의 차이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려 한다.

II.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중심 주체 : 엘리트? 대중? 민중?

라틴아메리카에서 19세기 초반부터 약 50년 동안의 내전을 거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이 보수주의를 누르고 정치 투쟁에서 승리하여 해계모니를

6) 봄 소설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작가들은 두 가지를 대중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다. 하나는 구어문화로서 라틴아메리카가 불균등, 불평등 발전을 하면서 농촌 등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수 백 년에 걸친 구어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지식인들은 대중의 기억, 반복의 문화를 통해 근대성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화자(narrador)에서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작가(autor)들이 대중문화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했다(Franco 1985, 311). 또한 엔리케 두셀도 1973년에 "cultura imperial, cultura ilustrada y liberacion de la cultura popular"를 발표하여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두셀 2018, 23-24).

획득한다. 자유주의자들이 특권적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부터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구성을 시작하는데 원주민계 혼혈인과 아프리카계 혼혈인을 ‘타자’로 ‘배제’했다. 즉, 중간계급 이상의 메스티소와 백인 후손만을 포용했다. 독립이후 유럽만을 바라보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기 까지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시각을 통해 원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⁷⁾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도 이 시기 1870년대에 나온 것이다.⁸⁾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유럽과 맥락이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주의 세력이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포폴리즘과 거리가 먼 정치 형태가 전개되었다. 이런 역사를 이해하면 ‘자유주의의 타자로서의 포폴리즘’을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유럽 보다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엘리트들이 대중을 ‘계몽’하려 했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중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단어 ‘배제’가 포폴리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라클라우에 의하면 “현실 사회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전체’를 열망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가 ‘이미 주어진 것’일 경우 그 전체는 억압받는 부분성으로 인해 거짓된 총체성이 드러날 것”(2005, 123)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주민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대중, 즉, 원주민계 혼혈인의 집단적 심층의식 또는 무의식속에 그 문화가 잠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근대성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외에 원주민⁹⁾ 문화가 가지는 ‘공동생산’ 그리고 ‘공동소유’의 문

7) 에세이 [파꾼도의 삶](Vida de Juan Facundo Quiroga)을 1845년에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도밍고 사르미엔토를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시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을 수 있다.

8) ‘라틴아메리카’는 1860년대 이전에는 하나의 범주나 지역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제2제정, 즉 나폴레옹 3세의 ‘근대적’ 발명품이다(화이트헤드, 니콜라 밀러 외 2008, 273). 19세기 후반부에 떠오른 “라틴”아메리카의 구상은 프랑스에 의해 진전되고 있던 “라틴성”의 구상에 서로 다른 정도로 의존했다. 라틴성은 구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운 글로벌한 근대적/식민적 세계질서에서의 편입을 위한 이 데올로기였다(Mignolo 2005, 58).

화적 전통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근대성/원주민 문화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오랫동안 병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양 있는 엘리트와 일반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연이 바로 중남미 문제의 핵심이다. 그 문제의 기원은 스페인 정복시기에 주조된 사회적 모델에서부터 시작된다. 19세기에 중남미 대중의 80%이상이 문맹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 하나는 다수 대중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근대 유럽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는 구어적 전통의 시골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유럽적 감수성의 도시문화이다 (Franco 1983, 18).

배제되던 ‘대중’을 인문학적으로 중시하게 된 것은 대략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¹⁰⁾ 1960년대 후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속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세계체제 안에서 재해석했다. 인문학자인 엔리케 두셀도 라틴아메리카 대중문화를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는 발전이론을 비판하는 종속이론이 출현하여 2차 대전이후 선진국들에 의한 구조적 약탈의 (재)위기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내부 지향적’ 발전 전략이 출현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는 과두계급의 엘리트 문화/대중문화의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나는 정복한다.”에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가 나온 것이다. 이를 절대화시킨 것이 헤겔이고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를 타자화 하고 유럽문화를 절

9)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이 함축하는 것은 순수한 혈통의 원주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주민 문화가 가지는 많은 문제들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원주민 문화는 현재 원주민계 혼혈인 즉, 라틴아메리카 다수 대중의 무의식에 잠겨있다는 의미이다.

10) 엔리케 두셀은 1965년에 “보편사 안에서의 이베로아메리카”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역사주의적 환원론을 반대하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명론도 비판하고 민족주의를 신비화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과거의 영광을 신비화하는 보수주의도 반대하고 무조건적 원주민주의도 반대했다. 두셀은 세계사의 틀 안에서 총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주장했다(두셀 2018, 15-16).

대화, 보편화시킨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제국의 문화,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럽 중심적 근대성을 지향하는 엘리트 계몽문화와 이와 다른 대중문화가 있다.오랫동안 식민지 엘리트들은 대중문화를 폄하했다. 대중문화는 국민문화와 다르다. 계몽적인 엘리트들은 교육을 통해 대중을 소외시키고 유럽만 바라보게 하였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오히려 문맹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다. 단지 대중문화는 엘리트들에게 재료(materia)였을 뿐이다....대중의 개념은 계급의 개념보다 더 광범하고 진정으로 과학적 해석의 개념으로 생각한다(Dussel 1980, 114-122).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흐름이 전복된 것이 1930년대 초의 ‘대공황’ 시기였다.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의 정치형태가 ‘실천’되었다. 즉, 실천적으로 대중이 주체로 또는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출현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담론적 수준에서는 대중이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 후, ‘대중’이 다시 1990년대부터 새롭게 정치의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다.¹¹⁾ 바로 이 시기에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대중을 지도자의 객체가 아닌 집단적 주체로 인식하는 담론이 출현한다. 핵심적인 학자가 라클라우다. 라클라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하층계급을 뜻하는 하층 대중(plebeyos)이지 일반 시민으로서의 대중(pueblo)이 아니다(Marchar 2006, 55).

‘대중’이란 단어는 매우 애매하고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대중’이 현실적인 헤게모니 투쟁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가 정해지는 “비어있는 기표”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의 정체성과 총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제”가 존재해야 한다. 이 배제를 위해서는 서로 동질화되는 움직임이 있게 되어 ‘차이’의 흐름과 ‘동질화’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함에 이르려는 유토피아적 총체성은 도달이 “불가능하나 필요하게”된다. 이리하여 부분성이 총체성을 재

11)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체제의 맨 아래에 위치한 원주민의 사회운동이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 1990년의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과 1994년의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 운동을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다(Laclau 2005, 93-95). 즉, ‘대중’은 현실 사회주의 담론의 ‘계급’과 같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된다. 보편자는 비어있는 자리, 특수자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지만 바로 그 비어있음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구조화/탈구조화에 일련의 결정적 효과들을 산출하는 공백이 된다(Laclau 2009, 93). 최종심급에서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총체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들의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중’이라는 개념은 ‘민중’이라는 개념에 비해 보편적 입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의 구체적 역사성을 담보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구체적 역사성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차별적 특수성에 고정된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를 차이들의 절대적 체계로 만들기 때문이다(라클라우 1992, 221). 그러므로 상이한 집단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상식’의 구성이 필요하다(223).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옹호가 여성, 이민자, 또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이한 투쟁들 사이의 등가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23). 그러므로 급진적 민주주의는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동질적, 절대적이지 않고 다원적 민주주의여야 한다(223).

우리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을 ‘민중주의’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영표(2014, 33)는 포퓰리즘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대중융합주의” 다른 하나는 “민중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는 대중을 동원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후자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로 인식하고 있다. 김은중(2016, 27)도 포퓰리즘을 엘리트/인민, 민중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은중은 정치 공동체의 성원 전체인 *populus*를 인민으로 *populus*의 일부이면서 배제된 집단인 *plebs*는 민중으로 호명한다.

그런데 ‘민중’이 누구인가? 과연 민중이 배제된 집단을 가리키는가? 이데올로기적 함축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1970-1980년대 우리 사회의 군부 독재세력에 의해 억압당한 노동자, 농민 등을 연상하는 것이 아닌가?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폴리즘은 이미 존재하는 그룹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그룹을 구성하는 형식들 중의 하나”(2005, 97, 강조는 필자)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계급’ 등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집단적으로 어떤 ‘대중’이 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클라우는 “대중(pueblo)은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실제 관계를 구성한다.”(97)고 한다. 여기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실제 관계”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70-1980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억압, 배제되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새롭게’ 배제되었다. 이들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적 구성을 통해 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할 경우, 포폴리즘은 출현하지 못한다. 위에서 김은중은 populus를 사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라클라우는 “사회 전체를 배제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고(즉, 배제하는 소수의 그룹과 배제당하는 다수의 그룹으로) 따라서 대중(pueblo)은 공동체 구성원의 전체보다 조금 작다”(107-108)고 한다. 당연하다. 전체 구성원에서 소수 기득권 그룹(oligarquía)을 빼야 하므로.

라클라우는 populus는 대중(pueblo)으로, plebs는 하층 대중 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los menos privilegiados)로 호명한다(108). 처음에 군중(masa)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는 해결되지 못해 고통당하면서도 관계 당국에 요구 또는 항의하지 않는 경우, 그 대중은 그냥 무정형의 대중(masa)으로 계속 남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택문제에 불만이 있는 어느 사회 그룹(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겪는 그룹들과 연대하여 관계를 맺고 당국에 집단적 요구를 하는 경우, ‘등가적 연쇄’(105)가 생기고 대중(pueblo)이 출현한다. 이를 라클라우는 ‘대중적 요구’(99)로 호명하고 포폴리즘이 출현하는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plebs)의 ‘개별성’에 머물던 것이 나중에 ‘등가적 연쇄’를 통해 대중적 요구로 전환되면서 부분성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 plebs의 ‘부분성’이 공동체의 ‘전체성’으로 인식된다. 단지 plebs가 부분적 개별성에 머물고 있을 경우, 배제된 그들은 투명인간처럼 존재

가 없다. 그러므로 단지 배제되어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민중’으로 부를 수 없다. 그런 접근은 추상적, 관념적 접근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을 통해 존재적 의미로 ‘부분’인 plebs가 존재론적으로 ‘전체’ 대중(pueblo)이 된다. 따라서, 소수 기득권 그룹을 제외한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도 대중(pueblo)이고 그 일부인 하층 대중(plebs)이 대중(pueblo)으로 전환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들 모두는 그냥 무정형의 군중(masa)으로 남는다. 다양한 개념들이 매우 우연적이고 애매하게 얹혀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사회현실이 바로 그렇다고 라클라우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민중’¹²⁾ 보다는 ‘비어있는 기표’이자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중’이란 단어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포퓰리즘 담론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용어인 것 같다.

III.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주류적 시각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주류 담론들이 등장한 것은 포퓰리즘의 정치형태가 군부독재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의 틀이 형성되었다. 핵심 개념은 ‘발전’과 저 발전에 대한 이론 이었다”(Weyland 2001, 4). 즉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주의의 시각에서 주류 포퓰리즘 담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발전주의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직후 1949년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였고 라틴아메리카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¹³⁾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

12) 필자가 ‘민중’이란 단어를 선호하지 않는 맥락은 민중이 일괄적으로 동질적, 선입견적 기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중은 인민을 의미하는데 서병훈(2008)은 포퓰리즘은 인민을 선동하는 대단히 비민주적 체제로 비판하는 반면, 서영표(2014)는 민중주의를 대단히 민주적 체제로 호명하고 있다. 더구나, 1970-80년대를 지나면서 진보 진영에서 강조했던 민중문화, 민중문화론 등도 이미 그 현실적 맥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13)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극빈선 가까이에 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긍정하고 민주적인 거래의 개념에 기초한 발전계획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평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시각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페론주의(포퓰리즘)에서 나타난 것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헤르마니등의 주류 담론이다.

둘째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유럽 중심부에 의해 ‘저발전의 발전’이 강요되고 있다고 세계체제를 비판한 종속이론이다. 이들 좌파세력들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1930년대까지의 전자본주의적 봉건적 단계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 발전 단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아니발 까하노와 월터 미놀로 등의 학자들은 이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16세기 초부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를 과도기적 단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순간, 매번 라틴아메리카 정치는 뒤처지고 발전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이 수입대체 산업화전략 또는 제 3세계의 국가발전 전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Mouzelis 1978 재인용).

세 번째는 기에르모 오도넬 등의 담론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소위 “관료적-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의 군부 독재시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포퓰리즘을 전복시킨 모델이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국가 발전을 제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국가 발전 이외에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주류적 시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카리스마 있는 ‘개인’인 지도자에 의한 대중(masa)의 조작, 선동, 동원이다. 이 외에 포퓰리즘은 경제 발전의 ‘과도기’에 계급통합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인식된다(헤르마니 1978, 97). 이 둘의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류 이론가가 히노 헤르마니이다. 그는 페론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런데 ‘과도기’를 중시하는 시각을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좌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봉건적 단계에서 부르주

변영을 위한 열쇠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쇠는 근대적 과학과 기술의 지식의 더 많은 적용이다”(Truman 1964, Escobar 2007, 17 재인용).

아-민주주의(근대적 자본주의)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 발전 단계로 인식하였다. 아직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전 단계에 있으며 이 혁명이 일어나면 자본주의 발전을 자극하고 봉건적 정체를 깨트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도 민족 부르주아와 동맹을 추구해야 하고 과두지배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통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Laclau 1977, 15). 왜냐하면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담론의 역사의 필연적 발전이라는 ‘근대성’에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근대성’의 맥락은 엘리트가 대중을 낮추어 보는 위계적 의미다.

그 이유는 소위 ‘대중의 모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근대적 정치제도가 대중이 소외되게 만들고 엘리트들은 순전히 레토릭에만 매몰되어 정치에 대한 허상을 조작하고 제도화의 이름으로 대중의 주체적 힘을 폄하하기 때문이다(라클라우 2005, 87-88).

주류적 시각은 시기적으로 보아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60-70년대에 생산된 헤르마니의 고전적 담론으로 포퓰리즘에 대해 적대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이후 웨일랜드 등의 네오포퓰리즘 담론으로 포퓰리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인다. 이 둘 모두 대중을 객체로 보고 지도자의 개인적 카리스마를 중시하는 점은 동일하다(웨일랜드 2001).

1. 헤르마니의 페론주의 담론

1) 비이성적 대중의 객체화

헤르마니는 이태리 사람으로 파시즘을 혐오하여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사람이다.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지식인이다. 대중에 대해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시각에 젖어있어 대중을 비이성적 존재로 간주하여 페론주의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대중을 조작, 동원한 것으로 인식했다. 즉, 헤르마니는 대중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한다.

헤르마니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난한 대중이 비이성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 조작, 동원되었다”고 주장한다(Viguera 1993, 51 재인용, 강조는 필자).

대중이 비이성적인 아노미 상태라는 이야기는 이들과 이성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도시/농촌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Germani 1978, 65).

근대성(자유주의)이 발전한 나라인데 왜 포퓰리즘이 성한가? 이런 의문이 헤르마니에게 있었다. 즉, 1930년대에 이미 경제발전, 사회적 근대화가 상당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안정된 대의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닌가? 그 이유로 헤르마니는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광범하게 농촌을 중심으로 전근대, 전산업적 공동체 지향의 사회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농촌/도시 사이에 서로 다른 문화의 이중구조가 심했다는 것이다(127). 농촌의 전근대적 사회구조를 타하며 일직선적 발전의 ‘근대성’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플라타 등의 대도시와 내륙의 문화는 너무 달랐다. 후자는 농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생존 자체가 힘들어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내부 식민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촌 인구는 대도시로 집단적으로 이주했다. 그러므로 중심부 대도시들만이 비대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도시에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매우 집중되어 있었다(65). 이들을 지도자가 조작, 선동, 동원하면 전국을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 것이다. 결국, 1930년대 공황 위기 이후 1940년대에 등장한 페론에 의해 대중 ‘동원’이 이루어진다(67). 즉,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의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페론주의의 사회적 동원의 대상이 된 것이다(129).

2) 내생적 국가 발전 ‘과도기’의 계급동맹

처음에 헤르마니는 페론주의가 파시즘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분석을 한 뒤에 파시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달리 파시즘에 정도되지 않은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중간계급이 유럽보다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상층과

두 계급에 의해 제한적 민주주의에 그쳤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중간계급은 사회 정의에 민감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구조가 약해 조직된 도시 노동자계급의 힘이 별로 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 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도시 노동자계급이 미발달된 이유는 1)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소수의 대도시에만 집중되었고 2) 대부분 이민자들로 시민권 획득이 안 되었고 3) 아나키즘이 강했고 4) 선거부정, 폭력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당만이 분투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Germani 1978, 143).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에는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의 위협 앞에 중간계급이 파시즘으로 경도되었다(67).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럽과 달리 하층 노동자계급이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포퓰리즘에 기울어졌다(85).

다시 말해, 헤르마니는 파시즘을 낳는 가장 중요한 구조는 중간계급이 파시즘을 지지하는 것인데 아르헨티나는 이와 다르게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모두 함께 파시즘이 아니라 국가 포퓰리즘을 선호했다고 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태리보다 도시 중간계급이 더 두터웠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위협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 연대했다(우정과 동네 공동체를 통해). 공포심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절망하던 이태리 중간계급과 달랐다. 그러나 일부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싫어했고 반페론주의에 합류했다.(Germani 1978, 231).

헤르마니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파시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의 파시즘과의 결정적 차이로 유럽에서는 중간계급이 비이성적이었다고 비판한다. 헤르마니는 아르헨티나의 대중이 포퓰리즘 운동을 통해 “다른 계급의 이익에 봉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자 대중과 중간계급이 계급동맹을 통한 국가발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242). 그런데 하층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빠른 도시화로 중간계급이 빨리 형성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하층 노동자 계급을 동원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고 중간계급과 상층 계급은 서로 갈

등하고 있었다(96-97).

라틴아메리카가 19세기 초반에 독립혁명을 할 때 사회의 맨 아래 하층계급, 원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민족주의적이고 자존감이 강하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지배계급이 되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근대국가를 설립하기 시작할 때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제대로 산업화(공업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이 철저하게 유럽의 자본가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구조적으로 하층 노동자 계급을 동원할 필요를 별로 가지지 못했다.¹⁴⁾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 시기 즉,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 체제는 포퓰리즘과 거리가 먼 ‘대중 배제’의 정치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1940년대부터 등장한 포퓰리즘, 예를 들어, 페론주의는 라클라우의 시각이 아니라 헤르마니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비록 대중이 비록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제가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이다.

앞에서 포퓰리즘이 위기 상황 또는 역사적 전환점에 출현한다고 언급했다면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몇 가지 전환점을 떠올려보자. 16세기 이후 식민지시기를 거쳐 독립이후 1880년까지는 라틴아메리카(여기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외부 지향적으로 편입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880년에 첫 번째로 수출농업의 위기가 왔다. 두 번째 위기는 1930년 대공황의 위기로 아르헨티나에 큰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헤르마니는 이 시기를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가는 과도기로 본다(1978, 129).

1930년 이전에 헤게모니를 가졌던 자유주의 세력이 몰락하고 보수주의 세력이 집권했지만 이들은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

14) 필자는 박정희체제를 파시즘적 포퓰리즘으로 해석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체제는 외부 지향적 경제구조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하층 노동자계급의 저임금이 경쟁력의 바탕이었으므로 산업화를 이끌면서 독재 정치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중간계급도 파시즘적으로 포섭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계급통합의 우파 포퓰리즘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계급투쟁을 적대시킬 수 있었다는 가설이다.

가 1943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출현한 페론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내생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계급동맹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취한다. 즉, 외부의 제국주의와 연계된 세력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적 전략과 함께 중간계급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계급을 포용하고 ‘동원’하여 포퓰리즘으로 나아간 것이 페론주의라는 것이다(헤르마니 1978, 102, 128-129).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페론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페론주의 참여 노동자들은 ‘충동적’ 참여였다. 페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다”(240).

다른 시각에서 설명한다면,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자본가에게 포섭된 경제구조를 민족주의적으로 독립시키려는 중간계급의 열망이 포퓰리즘이 성공할 토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유럽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유럽으로부터의 이민과 농촌으로부터의 대량 이주 등을 통해 경제 사회적 변화 또는 위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계급투쟁보다는 지도자가 대중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이 출현하기 쉬웠다. 그러므로 헤르마니가 페론주의를 ‘대중적’, ‘민족적’, ‘권위적’ 포퓰리즘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강하다. 왜냐하면 페론주의는 계급투쟁과 거리가 먼 다계급 운동이기 때문이다.

1930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도시화가 먼저 선행되었고 (69)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이 제대로 성숙하기 전에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에 의해 시골에서 집단적으로 이주한 노동자계급중의 일부는 빠른 시간 안에 중간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88). 이에 따라 상층계급과 중간계급이 갈등할 때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평등 지향성에 공감하여 서로 쉽게 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계급을 대상으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한 대중동원이 쉽게 이루어졌다(67).

이에 비해 유럽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좌파 계급투쟁의 근거지였고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은 우파로서 노동자계급을 탄압하는 파시즘의 중심세력이었다 (86). 즉, 아르헨티나의 중간계급이 유럽보다 더 진보적인 것이 페론주의가 파시즘으로 경도되지 않은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다(67).

헤르마니의 시각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연

대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이들을 동원하여 비민족주의적 최상층계급을 적대시하고 권위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포폴리즘에는 사회의 최상층을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페론주의는 수출농업에 기초한 대지주로 이뤄진 소수의 전통적 과두계급(올리가르키아)을 공격했다. 이들 대지주들은 영국의 금융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발전에 해악이었다(147).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좌파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정당의 취약성이 존재한다.

물론 일부 중간계급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적대시하여 반페론주의의 중심세력이 된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포폴리즘은 서구적 좌파 이데올로기가 정당으로 자생적 성장이 실패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8). 그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헤르마니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미성숙했고 중간계급이 이들 노동자계급을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화가 지체된 이유는 유럽이 공업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이다(65).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는 노조가 발달했어도 노동자계급이 권위주의적 포폴리즘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70-85).

유럽의 경우, 자본주의의 위기 시에 노동에 대한 양보를 자본이 철회할 때 파시즘이 출현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위해 정치의 선동, 미학화가 있었다. 하층 중간계급과 보수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파시즘 지지의 핵심이었다. 이에 비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전 자본주의 단계의 시골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집단적으로 이주해온 “뿌리 뽑힌 사람들”이 페론주의를 지지했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 세계 대 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사회의 구조적,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중단,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일어나 그동안 배제되었던 농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도시로 이주해와 국가발전체계에 편입된 것이다. 이들이 도시 하층 노동자계급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중간계급도 연대한다. 유럽의 맥락과는 달랐다. 즉, 1943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는 대중+중간계급+군부의 페론주의/중간계급+자유주의 지식인의 “급

진 시민연합당”(UCR) 사이의 대립전선이 그어진다(128).

얼핏 보아 페론의 국가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계급동맹에 하층 노동자 대중을 포섭하는 것과 뿌리 뽑힌 대중에 주목하는 라클라우의 시각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맥락이 전혀 다르다. 페론이 계급동맹을 실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헤르마니의 시각이라면 페론이 하층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를 통한 ‘대중의 주체적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라클라우의 시각이다.

헤르마니는 흥미롭게도 라틴아메리카는 원래부터(16세기부터) ‘외부 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져왔는데 1930년 대공황이후 내생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이 출현했다고 본다(64).¹⁵⁾ 즉, 16세기부터 라틴아메리카가 세계체제에 외부 지향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점은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의 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2. 웨일랜드의 라틴아메리카 네오 포퓰리즘 담론

웨일랜드 담론의 핵심은 1980, 1990년대의 새로운 포퓰리스트 즉, 네오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에 있다. 네오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후지모리, 아르헨티나의 메넴 등을 들 수 있다. 웨일랜드는 이들이 고전적 포퓰리즘과 다르다는 맥락에서 네오 포퓰리스트들로 불렀다. 이들이 개인적 리더십이 탁월한 정치가들로서 포퓰리즘의 경제사회적 구조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 사회동원의 단계 또는 지연된 종속적 발전의 단계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웨일랜드 2001, 8-9). 헤르마니 담론과의 차이점은 헤르마니가 고전적 카리스마를 강조하면서도 과도기의 경제 사회구조에서의 국가발전 전략을 강조한다면 웨일랜드는 전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15) 포퓰리즘을 격퇴한 것이 군부독재인데 이들은 다시 ‘외부 지향적’ 경제구조를 원했다. 그리고 포퓰리즘 퇴조이후 포퓰리즘이 경제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 주류 학자들에 의해 유포되었는데 이를 비판, 거부하는 담론이 있다(벨트마이어 & 페트라스 2012, 177).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부독재가 출현했는데 기예르모 오도넬은 이 군부독재시기를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발전시기”로 호명한다.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이 시기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시킨다.

웨이랜드는 네오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을 조작, 동원하여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집중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의 경우, 주로 산업노동자가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 어필하면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고 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이 중요하고 경제정책은 도구적일 뿐이라고 했다(웨이랜드 2001, 1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정권이 없애고 싶어 했던 적들 중의 하나인 정치적 선동, 조직적 불안정, 경제적 무책임, 과도한 분배의 니그리움 등으로 경멸하던 포퓰리즘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다른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되살아났다.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새로운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고전적 포퓰리즘의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고전적 포퓰리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면서 한편으로 고전적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전설을 없애는데 애를 쓴다. 이로 인해 원래 혼란스럽던 포퓰리즘의 축적된 개념정의의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된다. 예를 들어, 무정형의 대중에 대한 개인적 카리스마, 노동을 핵심적 지지그룹,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 확장적 경제정책 등을 변수로 볼 때 메넴은 개인적 카리스마 외에 나머지 요소는 페론과 한참 다르다. 그렇다면 (메넴과 같은) 새로운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을 굳이 포퓰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는가?(웨이랜드 2001, 6-7).

웨이랜드는 네오 포퓰리스트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면서도 고전적 포퓰리스트나 네오 포리스트나 헤게모니 획득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통한 계급 통합을 하려는 것은 마찬가지로 본다. 과거 페론의 시기에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통해 그리고 메넴의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적 대외 개방전략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 육체노동자 계급을 포섭하는 것이다. 결정적 차이는 전자는 대중의 지지가 상당기간 유지된 데 비해 후자는 대외 개방전략을 실시한지 몇 년 되지 않아 곧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이 엄청 늘면서 대중의 광범한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이다.¹⁶⁾ 아니발 키하노 등의 탈식민 좌파 학자들은 메넴, 후지모리 등이 발전주

16) 1990년대 메넴의 통치로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한 것에 대해 안태환(2016)을 참조.

의, 민족주의적 경제정책, 관대한 사회정책 등을 강조하지 않아 이들을 포폴리스트로 보지 않는다(9).

웨이랜드는 포폴리즘을 재정의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개인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조작, 동원하는 것을 포폴리즘으로 인식하기 위해 정치에 집중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포폴리즘은 정치적 술책이라는 것이다(18-19). 다시 말해 포폴리즘을 과도기의 국가 발전의 경제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1980, 1990년대의 네오 포폴리스트들(18) 때문이다. 이들은 전자의 성격만 남아있고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 국가 산업발전, 노동자 대중에 대한 관용적 사회정책 등의 과거의 경제 사회적 구조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IV. 라틴아메리카 포폴리즘에 대한 라클라우의 시각

라클라우는 대중이 정치적으로 엘리트에 의해 규정되는 객체에서 벗어나 '주체'로 출현하는 것이 곧 포폴리즘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엘리트가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지도자가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대중 스스로가 주체로 출현하여 대중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를 '대중적 요구'라고 부른다-이 포폴리즘의 출발점이다.

제3세계에서 농촌에서 도시 변두리로 이주해온 대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다. 주택문제가 제일 크고 이 과정에서 이웃들이 다른 문제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 건강, 교육..... 불만족한 요구들이 쌓여간다. 관계 당국이 개별적으로 차이 있게 해결을 못할 때 이 불만들 사이에 등가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당국과 주민사이에 아주 큰 심연이 생긴다. 이리하여 등가적 연쇄의 출현을 통해 내부적 경계선이 형성되고 청원이 항의로 변한다. 아직 개별적으로 고립된 요구들을 우리는 '민주적 요구'라고 부른다. 등가적 연쇄를 통해 더 광범한 사회적 주체성이 구성되면 이를 '대중의 요구'라고 부른다(라클라우 2005, 98-99, 강조는 필자).

이 주장에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이 공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 정치

지형에서 1990년대 이후 특히 대중의 ‘배제’를 핵심어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반 대하여 대중 스스로가 대안적 사회운동의 주체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포괄적으로 “정치의 논리”(2005, 150)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정치의 논리라는 얘기이다. 이와 근접한 시각을 아르디티도 강조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일반적 정치 문화의 차원이지만 단지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나 또는 특정의 정치 조직의 종류가 아니다”(Arditi 2009, 4).

라클라우는 구체적으로 포퓰리즘을 두 가지로 인식한다. 우선 대중을 조작, 선동, 동원하는 부정적 포퓰리즘을 ‘가짜’ 포퓰리즘(2005, 236)이라고 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르루스코니를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포퓰리즘으로 급진적 포퓰리즘을 가리킨다. “급진적 포퓰리즘은 기존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급진적 재구성을 추구”(2005, 221)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대중의 일부인 사회적 약자(plebeyos)를 ‘배제’하는데 그 배제가 전면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하층 노동자 대중의 요구를 급진적으로 적극 수용한다.¹⁷⁾

대중의 요구가 구체화되는 방식은 “등가적 접합(연쇄)”를 통해서다. 이것이 곧 헤게모니의 구성이다(1992, 221). 즉, “배제된 자들의 고립된 요구들인 민주적 요구들 중의 어느 하나가 주도적으로 출현하여 헤게모니적 과잉 결정을 거쳐 ‘비어있는 기표’가 되어 등가적 연쇄가 출현하게 된다(라클라우 2005, 160-161). 예를 들어,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폭발했을 때 대중의 전면적 시위가 전개되면서 “모두 다 꺼져라(Que se vayan todos)”라는 구호가 ‘비어있는 기표’가 되어 그 안에 여러 다양하고 이질적인 민주적 요구들(고용, 주택, 건강, 교육, 정치 개혁....) 사이에 동질적으로 연대하는 등가적 연쇄가 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기득권 계급(정치세력, 지식인, 금융자본가, 노조

17) 1946년과 1949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배로 올랐다. 1946년까지 도시 대중에게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페론의 상승을 통해서임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페론이 도시의 하층계급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분개하고 있었다. 국내 총생산 중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1945년의 42.3%에서 1950년의 54.0%로 늘었다(Smith 1969, 240, 각주 51).

지도부, 고위 관료...)과 신자유주의가 배제한 사회그룹들(노동자, 주부, 학생....)사이에 ”갈등적 내부 경계선“(라클라우 2005, 110)이 형성된다. 대중의 저항은 기존체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저항을 통해 대중의 정체성이 출현하는 것이다(112).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어느 진보 지식인은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끌어내어 발전시키는 동시에.....대중의 열망과 에너지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정치의 폭을 확장하는 데 투여되도록 한다. 이것은 대중의 정치 주체화로 표현될 수 있다”(서영표, 2014, 36-37, 강조는 필자)고 한다. 이는 대중을 완전히 대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 스스로가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 주체가 아니라 대중 주체화로 호명한 것이 아닌가? 누가 대중의 정치 주체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인가? 아마도 진보적 엘리트가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물론 이 진보 지식인도 ‘대중의 열망’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엘리트들은 대중의 열망을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기 보다는 동원하고 이용하려한다”(서영표 2014, 33)고 엘리트들이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급진화 시키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 열망을 “엘리트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엘리트의 역할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단절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국가 제도 자체를 저항적 에너지를 통해 변형해내는 투쟁이 필요하다.....‘다양한 풀뿌리 운동’은 상품 화폐 이윤 논리를 벗어나려는 시도”(36)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현실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유물변증법적 분석으로는 자신의 좌파적 신념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27)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투쟁이 헤게모니 투쟁이라면서 다시 ‘계급’을 호명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확장하도록 하는 대항헤게모니 기획이 논의되어야 한다.....사람들을 유권자 또는 시민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

나라 ‘계급’과 ‘집단’으로 호명해야 한다”(34)고 하면서, 민중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애매성의 원인은 포퓰리즘/계급투쟁의 서로 경로가 다른 방법론을 섞어놓기 때문인 것 같다.

라클라우는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기득권 그룹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는 사람들을 포퓰리즘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차베스 혁명의 포퓰리즘을 라클라우는 자유민주주의를 급진화 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¹⁸⁾ 일반적으로 반 차베스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독재자로 차베스를 비난한다. ‘자유주의적 제도화’ 즉,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는 근대성의 정치적 구현의 핵심적 제도화인데 이를 차베스가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클라우는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라클라우는 “급진적 포퓰리즘이 (근대적) 정치의 주도권을 재구성하고 이론적 시각에서 정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만들려”(Laclau 2008, 146)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라클라우는 차베스 체제를 계급투쟁 노선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배제 한 베네수엘라 사회의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기존의 자유주의적 제도화를 급진화 시키는 급진적 포퓰리즘으로(2009, 827) 해석한다.¹⁹⁾ 이렇게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려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institucionalismo)가 포퓰리즘의 반대라는 라클라우(2009, 826)의 지적은 포퓰리즘이 기존의 “현상 유지”적 제도적 질서와 단절하려는 흐름임을 뚜렷이

18) 이에 대해서는 안태환(2012)을 참조. 베네수엘라의 신헌법 제 299조는 베네수엘라 대중의 “전반적 인간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필요(요구)와 능력, 즐거움, 생산력을 높이는 데”(마르크스, Lebowitz, 2008, 2 재인용)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자유주의의 테제를 급진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는 좌파의 대안이 “급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더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Laclau & Mouffe 2006, 221-222)는 라클라우의 주장과 만난다.

19) 라클라우는 차베스 체제에 대해 “완전히 국가 밖도 안 되고 완전히 국가 안도 해방적 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에 대해 영향을 끼쳐야 하고 사회적 항의가 발전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룩했다고 본다. 차베스 체제는 현재(2009년) 몇 년 전보다 더 안정되었다고 생각한다.”(Laclau 2009, 827)고 했다. 그러나 이런 라클라우의 평가는 너무 나빴던 것 같다. 왜냐하면 2009-2010년부터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여준다(Laclau 2005, 156). 이는 거꾸로 자유주의적 흐름이 포퓰리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던 시기인 1960-1970년대는 ‘냉전’의 시기였다.

그러나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마르크스주의 같이 경직된 이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비어있는 기표’로서 매우 유동적이고 애매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치, 사회 현실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2005, 91). 그러므로 포퓰리즘은 어느 특정의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적 운동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의 논리’다(2005, 150). 왜냐하면 포퓰리즘의 성패는 새롭게 집단적 주체로서 대중이 어떻게 출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페론주의의 출현은 대중이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무시, 배제된 것에 항의,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간계급과 지식인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했지만 하층대중에 대해 위계적,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 몰려든 노동자 대중은 소위 “셔츠 없는 사람들”(descamisados)로 불렸는데 페론은 이들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집단적 문화적 연속성에 공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차별을 상징화하고 전달하는 제도와 기관을 공격했다. 그들의 주요 타겟은 카페, 바, 엘리트의 클럽이었고 반 페론주의적 신문사에 돌을 던졌고 학생들도 그들의 항의 타겟이었다. 특히 유복한 계급의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조롱의 농담을 던졌다(De la Torre 1992, 411).

이렇게 하층 대중의 분노를 적극 수용한 페론을 대중은 정치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9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 대중은 다시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빈민대중이 독립적 집단적 주체로 출현할 수 있던 것은 이들이 사회의 주류 엘리트 집단과 다른 ‘공동체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페론주의 포퓰리즘이 공감한 것이다.

포폴리즘의 주요한 효과는 배제적, 인종주의적 사회 안에서 광범한 사회적 그룹에 대한 상징적 존엄성을 찾게 했다는데 있다. 페론추종세력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중은 과두지배의 “반 인민”과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인민 공동체의 담지자로 변혁되었다(De la Torre 1992, 413, 강조는 필자).

정치형태로서의 포폴리즘은 극우 파시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같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할 수 있다. 라클라우는 포폴리즘이 “‘정치적인 것’(lo político)의 존재론적 구성과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2005, 91)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것’의 존재론적 구성이란 배제되어왔던 대중(데모스)이 “대중의 요구”(99)를 통해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헤게모니적’으로 주체가 되는 정치형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포폴리즘이다. 여기서 ‘헤게모니’란 의미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고정적 선험성보다 유동적 우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헤게모니를 위한 등가적 접합과 자율성은 서로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등가적 접합은 자율성의 해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게모니는 애매하고 불안정한 균형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클라우 1992, 221-229).

이는 페론주의에서도 드러난다. 페론주의는 “하층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상응하여 급진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를 우회하는 권위주의의 성격도 드러낸다.

포폴리즘을 통해 예전에 배제되었던 그룹들의 정치적 출현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에 대해 모순적인 효과를 낳는 애매성을 보인다. 투표의 확장을 통해 대중의 편입과 공공광장에서의 그들의 출현은 포폴리즘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이들 대중의 행동은 이질적인 운동을 거쳐 무비판적으로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동일시한다. 더구나, 이분법적 포폴리스트 담론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두 개의 적대적인 장으로 사회를 나누게 된다. 이 같은 성격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아주 큰 장애를 만들게 된다(De la Torre 1992, 413-414).

페론주의에 대한 데 라 토레의 이러한 해석은 매우 날카롭다. 페론주의 즉

포퓰리즘이 양면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배제된 대중을 포용하는 것을 통해 급진적 민주주의의 출현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기득권 계급과 적대 전선을 구축하게 되므로 권력의 집중, 즉, 권위주의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포퓰리즘에 대한 즉각적인 가치판단은 상당히 애매하고 중요한 것은 대중이 구체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누가 포퓰리즘 정부를 공격하느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De la Torre 1992).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선이고 권위주의적 라틴아메리카 좌파 포퓰리즘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은 온정적 가부장적 지도자이다.²⁰⁾ 이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공동체주의적 가부장적 지도자를 유럽적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²¹⁾

1990년대 이후, 라클라우의 담론이 출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동시에 포퓰리즘에 대한 주류적 인식론적 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난다.²²⁾ 그 후, 라틴아메리카의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근대성/공동체성)를 옹호하면서도 평등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발전되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빈민 대중의 행상 등도 비공식 노동자로 인정하여 중요한 사회, 경제정책의 대상이다. 이를 단순히 국가의 복지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동적’ 삶의 인식의 혁신

20) 로페스 마야(2005, 237-240)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포퓰리스트인 차베스도 대중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이제까지 엘리트 담론에서 배제되어왔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머가 많고 비형식적인 문화적 상징의 화법을 사용하여” 대중과 지도자 사이의 따뜻한 감성의 상응을 보여준바 있다.

21) 시몬 볼리바르는 독립 운동가이며 동시에 저명한 정치 사상가인데 라틴아메리카의 공동체 중심의 가부장주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는 유럽식 자유주의 정치제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볼리바르 1815).

22) 라클라우의 『사회변혁과 헤게모니』의 영어판이 출판된 것은 1985년이었다. 페론주의는 실제 정치형태로 존재한 것은 1943년부터 1955년까지였는데 페론주의에 대한 라클라우적 시각에 의한 논문이 출판된 것이 1992년이었다(Carlos de la Torre(1992), “The Ambiguous Meanings of Latin American Populisms”, *Social Research*, vo. 59, no. 2, 385-414).

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공동체적 권리”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차베스 혁명의 코뮌 운동이나 아르헨티나의 대안(대항)헤게모니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성격이 바로 이 ‘공동체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구는 개인적 권리를 천부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근대성을 중시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차이가 드러난다.²³⁾

흔히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적 사회적 변혁을 설명하는 도구로 마르크시즘을 포함하여 유럽 중심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유럽 중심적 지식이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구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산업화시기에는 이념적 계급투쟁이 ‘불평등’을 핵심어로 전개되었다면 라틴아메리카에 1980년대 초반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배제’를 핵심어로 하여 기존의 ‘자유주의적 제도화’(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등)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무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맥락은 오늘날 근대성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자유주의의 틀 안에 머무르는 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음을 엘리트들은 할 수 없고 대중이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급진적 민주주의’가 소중하다.

V.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진보 또는 좌파라고 하면 계급투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계급투쟁보다는 포퓰리즘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더욱 그렇다. 아니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현대정치를 이해하는데 포퓰리즘의 방법론적 효용성이

23) 신자유주의, 불평등, 공동적 삶의 권리 등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오랫동안 정치의 갈등적 경계선이 소수 과두 엘리트/다수 대중으로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대정치의 맥락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1대 99 또는 10대 90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포퓰리즘’은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라클라우는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정치의 논리’이므로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함께 할 수 있다. 정치의 논리라는 얘기는 거의 모든 정치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대의정치, 의회정치에 대한 비판과 맥락이 닿는다. 현대정치에 있어 엘리트가 주도하는 의회정치가 위기에 처해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변혁적 시각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기존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가 힘들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백 년 동안 엘리트/대중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그만큼 많은 ‘대중’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왔다. 여기에는 진보 또는 좌파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6세기 또는 18세기로 보든, 근대성은 ‘발전 또는 진보’를 상정해왔다. 그런데 끼하노, 미놀로 등의 탈식민 이론가들은 근대성이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 근대 정치사상은 엘리트/대중의 위계적 차이를 전제해왔다.

현대 정치사상가인 랑시에르가 언급하듯이, 라클라우는 민주주의 정치는 자유주의적 제도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몫 없는 사람들’로 불리는 ‘배제’된 일정한 사회세력 또는 하층 대중이 자신들의 요구와 이질적인 다른 사회세력의 요구들과 연쇄적으로 접합하여(이를 등가적 연쇄라고 함) 대중적 요구를 제시할 때(이를 헤게모니로 인식함) 제도화에 경직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급진 민주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기 전의 주류 포퓰리즘 담론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헤르마니로 상징되듯이 하나는 엘리트 지도자가 대중을 객체로 조작, 동원하는 것이

고 또 하나는 전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국가발전을 위한 계급동맹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1980-9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연계되는 네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웨일랜드가 대중을 객체로 동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후자는 탈각시킨다. 이에 비해 라클라우의 시각의 핵심은 대중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출현하는 것을 포퓰리즘의 핵심 논리로 제시한다. 오늘날,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 동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변혁에 대한 인식은 단지 신자유주의 비판 또는 극복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근대성’의 자본주의 문명 자체의 위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위기에 대한 근원적 ‘전환’ 또는 ‘대안’을 함축하는 것들 중의 하나도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이다.

참고문헌

- 김은중(2012),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27-62.
- _____(2016), 「근대적 사회구성체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7, No. 2, pp. 25-60.
- 로렌스 화이트헤드(2008), 「언제부터 라틴아메리카가 근대적이었는가?」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 편 저,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옮김, 그린비, pp. 271-293.
- 서병훈(2008), 『포퓰리즘』, 책 세상.
- 서영표(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대중영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민족문화연구』, 6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3-42.
- 안태환(2012),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으로 본 차베스 체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89-123.
- _____(2016), 「아르헨티나의 2001년 전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문화적 접근: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7, No. 3, pp. 29-65.
- 엔리케 두셀(2018), 「해방철학의 관점에서 본 트랜스모더니티와 상호문화성」,

- 『해방철학과 트랜스 모더니티』, 김은중 역,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pp. 11-68.
- 윌터 미놀로(2013),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그린비.
- 자크 랑시에르(2008a),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 _____(2008b),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 진태원(2013), 「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 『역사비평』, 105, 2013 겨울, pp. 182-220. 역사비평사. 호세 마리아 스베르트(2010), 「진보, 권력과 종교적 신념의 화학적 변용」, in 볼프강 작스 외, 『반자본 발전 사전』, 아카이브, pp. 394-422.
- 헨리 벨트마이어 & 제임스 페트라스(2012),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구조와 변화」, 켄 니퍼스 블랙(편 저),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역, 이담북스.
- Arditi, Benjamin(2009), “El populismo como espectro de la democracia. RespuestaaCanovan”, *Política en los bordes del liberalismo*, Barcelona: Gedisa, pp. 107-119.
- Bolívar, Simón(1815), *Carta de Jamaica*, <http://juventud.psuv.org.ve/wp-content/uploads/2009/05/cartajama>, pp 1-15.
- De la Torre, Carlos(1992), “The Ambiguous Meanings of Latin American Populisms”, *Social Research*, Vol. 59, No. 2, pp. 385-414
- _____(2017), “Populism and Nationalism in Latin America”, *Javnost- The Public*, pp. 1-16.
- Dussel, Enrique(1980), “Apendice: cultura imperial, cultura ilustrada y liberación de la cultura popular”, *La pedagogía latinoamericana*, Bogotá: Nueva America.
- Ellner, Steve(2013), “Las complejidades de la izquierda latinoamericana en el poder: experiencias y desafíos en el siglo XXI”, *Cuadernos del CENDES*, Vol. 30, No. 84.
- Escobar, Arturo(2007), *La invención del Tercer Mundo*, Caracas: el perro y la rana.
- Franco, Jean(1985), *La Cultura Moderna en América Latina*, México: Grijalbo.

- Germani, Gino(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Laclau, Ernesto(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Lowe and Brydone.
- _____(2005), *La razón populista*. Buenos Aires: Cfe.
- _____(2008), “Reseña de "Debates y combates por un nuevo horizonte de la Política”, *Cuadernos del CENDES*, enero-abril, año, Vol.25, No.67, p.146.
- _____(2009), “Laclau en debate: Postmarxismo, populismo, multitud y acontecimiento(entrevistado por Ricardo Camargo)”,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29, No. 3, pp, 815-828.
- _____ & Mouffe, Chantal(2006), *Hegemonía y estrategia socialista*, Buenos Aires: Cfe.
- Lebowitz, Michael A.(2008), “The Only Road is Practice”, *Monthly Review*, June 2008, 1-10.
- Lopez Maya, Margarita(2005), *Del viernes negro al referendo revocatorio*, Caracas: Alfadil.
- Marchar, Oliver(2006), “En el nombre del pueblo la razon populista y el sujeto de lo politico”, *Cuadernos del CENDES*, mayo-agosto, año, Vol. 23, No. 62, pp. 37-58.
- Mignolo, Walter D.(2005), *The idea of Latin America*, London: Blackwell.
- Mouzelis, Nicos(1978), “Ideology and Class Politics a Critique of Ernesto Laclau”, *New Left Review*, No. 112.
- O'Donnell, Guillermo(1979), “Tensiones in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David Collier(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pp. 285-318.
- Patruyo, Thanali(2006), “La razón populista: aproximación a los retos teóricos de un mundo redefinido”, *Cuadernos del CENDES*, año 23, no. 63, pp.169-176.
- Smith, Peter H.(1969), *Politics and Beef in Argentina*,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Quijano, Anibal(1992), “Colonialidad y modernidad-racionalidad”, *Los conquistados 1492 y la población indígena de las Américas*,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pp.437-447.

Weyland, Kurt(2001),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Comparative politics*, Vol. 34, No. 1, pp. 1-21.

안 태 환

성공회대학교

tomy3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9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Main Stream Discourses and Laclau's of the Latin American Populism: Perspective of the modernity and one of People as Subject

Tae Hwan, Ahn
SungKongHoe University

Ahn, Tae Hwan(2019), "Main Stream Discourses and Laclau's of the Latin American Populism: Perspective of the modernity and one of People as Subjec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39-73.

72
73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stream discourses and Laclau's of the Latin American Populism. Populism is a theory with the very difficult and ambiguous themes. But specially Populism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 the Latin American Politics. Because the antagonistic front between the minority elite of oligarchy and the majority people is a key word to comprehend the Latin American Politics. The main stream discourses indicate Germani's that interpret the populism of the 1940-50s and Weyland's that treat the Neopopulism of the 1980-90s. Laclau's appeared after the 1990's. Germani interprets the populism as a manipulation, propaganda and mobilization of the people. And also interprets as a class-allianc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national development. Weyland affirms that the latter disappears and the former remains. That is to say, the main stream discourses show the perspective of the hierarchical modernity which discloses that the elite sees the people as a object and emphasizes the national development. Meanwhile, Laclau interprets the populism very differently with the main stream's. According to him, the populism is not a ideology but political logic that promotes the radical democracy. The starting point is the appearance of the people as a subject. It emphasizes the demand of the people. More concretely the equivalent chain of the people.

Key words Main stream discourses, Laclau, hierarchical modernity, demand of the people, equivalent chain